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독주 반드시 막아야"

노동과세계 | 승인 2008.04.08 11:29

한나라당 독주 막고 균형정치 이뤄야...5대 민생입법과제 발표도

[사진1]

4.9총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민주노동당 지지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선거대책위 전원은 8일 오전 9시 일제히 경남도당 사무실에 집결해 기자회견을 열어 "100석보다 강한 민주노동당 20석은 대한민국 정치 중심을 잡는 '균형의식'이자 '필요의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패정당 한나라당이 금권․관권선거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으며 부패한 한나라당의 정치는 결국 표를 얻을 때만 서민들에게 고개 숙이고, 국회에 들어서면 1% 부자들을 위해 고개 숙이는 정치"라고 일축하고 "한나라당은 심판 대상이지 선택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또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그랬듯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민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국민들이 똑똑히 봤다"고 지적하고 "민생은 민생이 무엇인지 알고, 서민들 삶을 아는 정당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민주노동당과 지지단체들은 "한나라당 국회장악은 부자만을 위한 보수정치의 시작이고 독주일뿐"이라며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해야 정치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권과 기득권으로 얼룩진 부패한 보수정치 역사를 반드시 마감시키고, 정치를 99%의 국민들께 되돌려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진보정치 명운은 노동자-서민생존과 맞닿아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이를 숙명처럼 여기며 민생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을-사천-울산북구로 이어지는 삼강 진보벨트에서 민주노동당의 승전보가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다"고 현재 전략 지역 총선투쟁 상황을 설명하고 "한나라당 독주를 막을 무기로서 민주노동당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동당 선거대책위 지도부 전원은 "민주노동당은 총선민심을 받들어 진보진영을 하나로 모으고, 보수대연정에 맞서는 진보대연합, 진보대단결의 중심이 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8대 국회 등원시 100일 안에 실현할 5대 민생 입법과제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5대 민생과제로는 ▲등록금상한법 처리▲비정규직 법안 처리 ▲원자재가-납품원가연동제 법제화 ▲지역경제활성화법안 제정 ▲농가안정화법안 개정 등이다.

■민주노동당의 5대 민생 입법과제

1. 등록금상한법

- 법안명 :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
- 현황 : 2007.3.26 최순영 의원 발의, 현재 교육위 계류중.
- 내용 : 한해 등록금 상한액을 월평균소득으로 상한. 한 학기 150만원 등록금 실현.

2. 비정규직 법안 처리

- 법안명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 내용 : 비정규직 규모 축소 및 실업급여1년 연장, 비정규직근무여건 개선.

3. 원자재-납품원가연동제 법제화

- 법안명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 내용 : 원자재가격과 납품원가를 연동하여 중소기업의 고통 해소.

4. 지역경제활성화법안

- 법안명 :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 현황 : 06.5.23 발의(민노당 9인 + 임종인), 현재 산자위 계류중.
- 내용 : 대규모점포의 출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산품의 지역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가 선 순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

5. 농가안정화법안

- 법안명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전부개정안
- 현황 : 각각 농해수위, 법사위에 계류중
- 내용 : 농기계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 시 보상 대안,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을 다양화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에 기여하고 농어민의 이익을 도모함.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